

#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·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'청신호' 공급

신혼부부 주택		
3대 개별 목표		
1. 임대공간 조성 : 여가공간, 키즈공간 확보 (가변 공간)	2. 공간 최적화 : 주방(1인) 주방, 식당 확보 욕실(기능 통합)	3. 수납 확보 : 드레스룸, 팬트리, 냉장고장, 입자생강고장 계획
39㎡ (2Bay)	49㎡ (2Bay)	55~59㎡ (3Bay)
새내기 신혼부부를 위한 자기계발형	유지내 신혼부부(2~3인)를 위한 자녀 계획형	유지내 신혼부부(3~4인)를 위한 자녀 양육형
1Bed + aRm	2Bed	2Bed + aRm
수납강화형	키즈케어형	키즈케어형
수납강화형	키즈케어형	자기계발형
<p>거주형에 주목 풀라사는 알파동</p>		

한평 더 신혼부부 특화주택 평면



한칸 더 수납특화 아이템

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브랜드인 '청신호'를 공급한다.

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올해 7월 성북구 정릉동을 시작으로 청신호 주택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.

청신호는 '청'년과 '신'혼부부, 호(戶)에서 한 글자씩 따왔으며 주거육아·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의 내 집 마련에 청신호를 켜겠다는 의미가 담겼다.

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 거주 청년과 신혼부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평면을 개발했다.

나만의 한 평(3.3㎡)을 제공해 SH의 기존 표준평면보다 면적을 확대하고, 수납·배치 등 공간활용을 극대화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.

청신호 주택의 경우 ▲ 청년노마드형(원룸형) ▲ 워크&라이프형(거실·침실 분리) ▲ 소셜다이닝형(거실확장형) 세 가지를 선보인다.

모든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몸만 들어오면 될 수 있게 빌트인 가구가 완비된 일체형을 공급한다.

주방가구 규모를 고를 수 있고 욕실은 건식과 습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.

신혼부부용 주택은 ▲ 자기계발형(자녀가 없는 신혼부부) ▲ 자녀계획형(2~3인 가구) ▲ 자녀양육형(3~4인 가구) 세 가지로 나눠 공급한다.

자녀 양육·취미생활 등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알파(α) 공간을 배치했다.

청년·신혼부부 주택 모두 내부뿐 아니라 외부 현관문 근처에 택배 보관함 등 수납공간을 갖췄다.

단지 곳곳에는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.

정릉동 제1호 청신호 주택은 지상 4층 규모로 청년 108가구, 신혼부부 25가구, 고령자 33가구 등 총 166가구로 구성된다.

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"같은 공간이라도 실제 사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생활방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간활용을 극대화한 주거모델을 지속해서 개발해 임대주택의 품질과 이미지를 높여나가겠다"고 말했다. ♣